

광주 남구, 장애인 주택 고친다

올해 사업비 4,200여만원 투입 11세대 개·보수

턱 낮춤·손잡이 설치 등 오는 10월말까지 완료

광주 남구는 14일 “장애인의 주된 삶의 공간인 주택 내 이동 불편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주택 11세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이 오는 5월부터 본격 진행된다. 개·보수가 이뤄지는 주택은 총 11

세대로 7세대는 대촌 등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주택이며, 나머지 4세대는 도심에 위치해 있는 장애인 주택이다.

남구는 17일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위탁 업무를 수행할 드림하우징과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4,200여만원을 투입, 해당 주택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공사를 진행해 오는 10월말까

지 관련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조만간 세대별 현장 조사를 통해 이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출입구 및 문턱 낮추기를 비롯해 낙상 방지를 위한 화장실 손잡이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 부분에 대한 점검을 꼼꼼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대부분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만큼 주택 내에서 이동 장애 등의 불편함이 따르지 않도록 현장조사부터 설계까지 관련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라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4일 각 기관 회의실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진행된 장애인고용증진 협약식에서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사진 왼쪽)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사진 오른쪽)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양수산부, 장애인고용 향한 뜻 올린다

장애인고용 확대 및 장애인화적 근무환경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 14일 각 기관의 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어 정부가 적극 대응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가 대한민국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전형 및 중증장애인 경력채용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초과하였으나, 근무 직종이 단순 사무나 노무 비율이 높고 기술·기능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낮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무분석을 통해 장애인채용 직무를 확대해서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문을 넓힐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각 소속기관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을 위해 인사담당자 고충상담 교육을 진행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종란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의 협약 체결로 공직 진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공단은 해양수산부가 장애인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무안군,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원 씩 지급

50억 원 투입...지원금 부정유통 방지 위해 선불카드로 지급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주이다.

신청기간은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무안읍, 삼함읍, 청계면 등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은 신청인들이 일시에 몰리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별로 접수 일자를 따로 정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다.

지급방법은 지역 내 자금 유출 방지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무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제작하여 5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김 산 무안군수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비 50억 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서 마련한 재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등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다”라며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무안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 씩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재원인 군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5천여 명으로 3월 26일 현재 무안군에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주와 광업, 제조업, 운수업은



공영쇼핑,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기업 상품 5시간 특집전

공영쇼핑은 오는 20일 장애인 기업 상품을 5시간 동안 편성해 판매하는 ‘장애인의 날 특집전’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특집전에는 △주얼라인 오로라 2(오전 9시 30분) △하늘정식혜(오후 2시 40분) △트트니 스테인리스 빨래건조대(오후 3시 40분) △한돈 대패삼겹살(오후 4시 40분) △바로 바로 무선 진공포장(오후 5시 40분)을 방송한다. 5개 업체 모두 장애인이 대표로 있거나,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기업 제품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갖춘 장애인기업들이 있다”며 “공영쇼핑이 장애인기업의 든든한 판로로서 함께 성장하고, 아울러 특집전을 통해 고객들에게 알려지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군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수도 설치 지원금 100만원 전달

함평군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국도)는 16일 관정노후로 인해 수도공급이 중단된 지역 저소득 가구에 상수도 설치 지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해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과 주민들이 직접 모은 것으로, 성금 전액은 해당 가구에 대한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건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